

<p>Many people claim that all religions seek the same answers. Some picture religion finding God in the way that a group of blind men might describe an elephant. One man feels the elephant’s trunk. Another feels and describes its leg. Yet another might describe its head, and so on. Each man is unknowingly describing a part of the elephant. Put their descriptions together and you have an elephant. So too, if we put all of the world’s religions together we finally arrive at God. But no one can complete the picture!</p>	<p>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같은 답을 찾는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눈이 먼 사람들의 무리가 코끼리를 형용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 종교를 묘사합니다. 어떤 이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다른 이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코끼리의 머리 등을 묘사할 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한 채, 코끼리의 일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설명을 함께 모으면 이는 코끼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합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p>
<p><u>It’s arrogant nonsense!</u> To say that each blind men is describing part of an elephant needs some sighted person to see the whole elephant. And who can do that? It’s the one who says that all religions are the same. In other words, we Christians are blind. So too are all other world religions. We cannot see the elephant as a whole. But the arrogant person who sees that all religions are the same has this complete and total knowledge. How arrogant can you get?</p>	<p>이는 오만한 뉘센스입니다! 각각의 눈먼 자들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묘사하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선,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은 눈먼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보는 오만한 자는 이러한 완벽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만할 수 있는 걸까요?</p>
<p>Only the God of the Bible has total knowledge. The Lord Jesus says (John 14:6),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Because of this claim, Christians are accused of being arrogant. But is it really an arrogant claim, that we have peace with God and know Him personally? Not at all! For, it isn’t based on anything we have done. Arrogance centres on our own achievements. Salvation—entering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is all of God’s mercy and grace.</p>	<p>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4:6).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크리스천은 오만하다고 비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정말로 오만한 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낸 그 어떠한 일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만은 우리 스스로의 성취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원은—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입니다.</p>
<p>Here’s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ity and any other system of belief. Other religions try to find God through good works. We Christians know that we’re right with God through the work of Christ alone. The other religions say, ‘Do this and you might find peace with God’. Christianity says, ‘It’s done’. Christ’s finished work on the cross is the only basis of our right standing with God. And it’s not arrogant to make that claim. You and I contribute nothing to our salvation. We have no good works to boast about. Our only boast is that Christ has paid the price for our sin. He has redeemed us and reconciled us to God. Christ is our hope. He is our peace and our joy. Our future is secure, through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p>	<p>기독교와 다른 신앙 체계와의 차이점은, 다른 종교들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 이것을 행하시면 하나님과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의에 대한 유일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어떤 선행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제하셨고 하나님과 화해토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p>

<p>In Philippians 1:12-18 we saw the peace and security that Paul enjoyed. Even while suffering in prison, he preached the gospel to the guards and to the brethren in the church. This in turn encouraged them to <i>speaking the word of God more courageously and fearlessly.</i></p>	<p>우리는 빌립보서 1:12-18 에서 바울이 누렸던 평안과 보장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투옥 중에도, 그는 간수들과 교회의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p>
<p>Now some <i>preached Christ out of envy and rivalry, but others out of goodwill. . . in love.</i> But that's of no great concern to Paul. For <i>Christ is preached.</i> Paul rejoiced in the knowledge that where Christ is preached <i>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i> (Romans 1:16).</p>	<p>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는 큰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된 곳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롬 1:16).</p>
<p>And for us, it's just the same. We have confidence in the power of God's word. We read in 1 Peter 1:23, <i>For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perishable seed, but of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and enduring word of God.</i></p>	<p>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베드로전서 1:23 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p>
<p>United to Christ by faith, the apostle Paul was secure. So his circumstances didn't prevent him from his work of evangelism. It was <i>in Christ</i> that he was confident to preach. Now we don't know how many responded to the call of the gospel. It doesn't matter to us either, for we look to God in Christ to soften hard hearts. What does concern us is that the gospel be proclaimed.</p>	<p>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도 바울은 안전하였습니다.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이 그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가 응답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굳어버린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복음이 선포되었는가입니다.</p>
<p>So Paul isn't worried about his future. It's sure and certain. Listen to 3:12b, 14, <i>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 . I press on towards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s in Christ Jesus.</i></p>	<p>그래서 바울은 그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확실하고 틀림없습니다. 3:12b, 14 절에서 말하는 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p>
<p>What do you think of the future? Do we even have a future? Many people answer, 'No!' They worry about the threat of a nuclear accident that could destroy the earth. Others worry about the outbreak of war in the Middle East or in Asia. On the other hand, some others are more positive. They find hope in the goodness of man and in modern technology. If only such a hope had any sound basis for the future.</p>	<p>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거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을 원전 사고의 위험에 대해 걱정합니다. 다른 이들은 중동 또는 아시아에서의 전쟁의 발발을 염려합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좀 더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현대 기술과 인간의 선함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만일 이러한 희망이 미래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p>
<p>We might be tempted to put our hope in modern technology. But that's not Christian hope. Friends, hope for you does not lie with any woman or man, but with God. Because God is the King of the universe, we can have confidence in the future. Your true confidence and mine can only be found in God and His grace. For, it's in God that we have hope that lasts beyond this life and on into eternity.</p>	<p>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현대 기술에 두도록 시험당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크리스천의 소망이 아닙니다. 동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여성 또는 남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확신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의 영광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삶을 너머, 영원토록 지속되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p>
<p>The apostle Paul in his letter to the Philippians has now moved from the past through to the future.</p>	<p>빌립보인들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나아갑니다. 1 장 12 절을</p>

<p>Remember 1:12? There, he said <i>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i>. From there he moved to the present, <i>the brothers in the Lord have been encouraged to speak the word of God more courageously and fearlessly... Christ is preached .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i>.</p>	<p>기억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그는 <i>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i>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현재로 나아가, <i>형제가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i>.</p>
<p>Now Paul turns his thoughts to the future. He writes with confidence. Christians are confident in all situations. Well, what are the grounds of Christian confidence?</p>	<p>이제 바울은 그의 생각을 미래로 향합니다. 그는 확신으로 적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p>
<p>1. We have confidence in salvation 1:19, 20, <i>for I know that through your prayers and God’s provision of the Spirit of Jesus Christ what has happened to me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i></p>	<p>1.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1 장 19,20 절, <i>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파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i></p>
<p>Do you remember Job in the Old Testament? He lost his children, his possessions and his health, but not his faith. Hear what he says in Job 19:25-27. <i>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on the earth.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yet in my flesh I will see God; I myself will see him with my own eyes—I, and not another. How my heart yearns within me!</i></p>	<p>구약의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의 자녀들, 재산과 건강을 잃었습니다만, 그의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9:25-27 절에서 그가 말한 바를 들어 보십시오. <i>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i></p>
<p>Job had suffered disaster heaped upon disaster. Yet he had confidence in God. OK, he didn’t know how it would work out. But he knew that God would save him. He knew that God was at work in his life.</p>	<p>욥은 중첩된 재앙 가운데 고통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될 지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p>
<p>That’s what Paul is saying to us here in Philippians. Listen to his confidence. <i>I know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i>. The word <i>deliverance</i> could refer to his salvation. <i>I know that this will turn out for my salvation</i>. <i>Salvation</i> is perhaps a better word to use rather than deliverance. He knows that he has been saved in the past. That’s when he trusted in Christ. He knows that united to Christ by faith his right relationship with God is secure. And he knows that in the future his salvation will still stand firm.</p>	<p>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을 들어보십시오. <i>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i>. 구제(deliverance)라는 단어는 그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i>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i>. 구원(salvation)이라는 단어가 구제(deliverance)보다는 사용하기에 아마도 더 적절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그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 안전하게 보장 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그의 구원이 여전히 굳건히 설 것임을 압니다.</p>
<p>Paul is sure of being right with God. How do we see that confidence? Note verse 19. <u>First</u> he is confident that the Philippians are praying for him. There’s only one thing that a Christian can covet of another and that is prayer—that we pray for one another.</p>	<p>바울은 하나님과의 의에 대해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알까요? 19 절을 주목하십시오. <u>먼저</u> 그는 빌립보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함을 확신합니다. 크리스천이 다른 이에게 탐낼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이며, 이는 기도입니다 -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p>
<p><u>Second</u>, he says, ‘I know that my salvation is secure. I am saved from the power and penalty of sin through</p>	<p><u>둘째로</u>, 그는 ‘나의 구원이 확실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통해 죄의 권세와 처벌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p>

<p>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He writes in Galatians 2:20, <i>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i> Third, he has the Spirit of Christ. And as a Christian, Paul says (4:13), <i>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i></p>	<p>말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20 절에 <i>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i> 라고 기록합니다. 셋째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바울은 4:13 절에 <i>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i> 라고 말합니다.</p>
<p>What is the result of this confidence that Paul has? Note 1:20. <i>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i> His eager expectation and hope is that he will not be ashamed to exalt Christ in life <u>or</u> in death.</p>	<p>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확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20 절을 보십시오. <i>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i>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의 삶과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칭송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p>
<p>Now, the word <i>hope</i> sounds a little doubtful, doesn’t it? What Paul is saying is this: Hope for you, friends, is always based upon trust in God. His eager expectation is a concentrated and intense hope that strains forward like a runner crossing the finish line. You’ve seen how runners push their head and chest forward at the end of a race. Consider the recent Olympic Games and you’ll see what I mean.</p>	<p>자, <i>소망</i>이라는 단어가 조금 의심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소망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는 마치 결승선을 지나는 주자처럼, 앞으로 나아감에 안간힘을 쓰는 결연하고 열정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경주 마지막에, 어떻게 주자가 그들의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지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올림픽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의미하는 바를 아실 것입니다.</p>
<p>In other words Paul is confident. He’s sure of his salvation. He’s sure that the Spirit of Christ lives in him. And, because of the prayers of faithful Christians - Christ is exalted in his life. Whether he lives or he dies, no matter where he is or what he does, his future is good. He has the courage to go on and Christ will be glorified.</p>	<p>다시 말해,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는 그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살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들의 기도로 인해,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존귀하십니다. 그가 살던 죽던지 간에, 그가 어디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그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그는 계속 나아갈 용기를 가지며, 그리스도는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p>
<p>But the basis of his hope is only in, and always in, Christ. Job knew that he needed some way that he, a sinful man, could stand before God. He cried out for a go-between, a mediator to bridge the gap (Job 9:33, 34), <i>If only there were someone to arbitrate between us, to lay his hand upon us both. Someone to remove God’s rod from me, so that his terror would frighten me no more.</i> Job’s cry was answered, but not for many years. The bridge was none other than the Lord Jesus Christ. Jesus, the God-man, fully God and fully man has bridged the gap between God and sinful man.</p>	<p>그러나 그의 소망의 근거는 오로지,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옴은 죄인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필요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간극의 교량이 될 중재자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i>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 하시기를 원하노라.</i> (옴 9:33,34). 옴의 외침은 응답 받았으나, 다년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량은 바로 다름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간극을 메우셨습니다.</p>
<p>Do you have that same confidence? Do you know Christ as the One who has bridged the gap between you and a holy and perfect God? If you do not know Him, turn to Him. Admit that you need the Lord Jesus. Ask that He will forgive you for your sins. Receive Him into your life. Prayers like that He delights to answer. Then and only then can we know salvation, the forgiveness of sins and eternal life. Then you and I can say with Paul, <i>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i></p>	<p>여러분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스럽고 완벽한 하나님과 여러분의 간극을 메우시는 분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만일 그를 모르신다면, 그분께로 돌아서십시오. 주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기꺼이 응답하실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 오로지 그런 후에만 우리는 구원, 죄 사함과 영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p>

<p><i>whether by life or by death.</i> That brings me to my second point.</p>	<p>바울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두 번째 요점을 생각하게 됩니다.</p>
<p>2. We have confidence in death 1:21-24. <i>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If I am to go on living in the body, this will mean fruitful labour for me. Yet what shall I choose? I do not know! I am torn between the two: I desire to depart and be with Christ, which is better by far; but it is more necessary for you that I remain in the body.</i></p>	<p>2. 우리는 죽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1:21-24 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p>
<p>In the second century Polycarp was the bishop of Smyrna. The vivid account of his death demonstrates his deep faith in Christ. In the manner of his death we see an imitation of Christ. He was an old man when he was arrested in AD 155. At first he had tried to evade arrest by moving from one secure farmhouse to another. Eventually, he was caught and arrested. The Police Commissioner tried to persuade him to give up his faith, ‘Where is the harm in just saying Caesar is Lord and offering incense and so forth when it will save your life?’ But Polycarp refused to deny his faith in Christ.</p>	<p>폴리카르프는 2 세기 서머나의 주교였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의 방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사함을 봅니다. 서기 155 년, 그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연로한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안전한 농가로 옮겨 다니며 체포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잡히고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지휘관은 ‘네 목숨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가이사가 주(主)라고 말하고 분향하는 것 등에 무슨 해가 있느냐?’ 라며 그가 그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카르프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p>
<p>He was led into the arena. There, the governor said to him, “Take the oath and I will let you go. Revile your Christ.” Polycarp replied, ‘<i>Eighty and six years have I served Him, and he has done me no wrong. How then can I blaspheme my King and my Saviour?</i>’ In his dying words, Polycarp blessed and glorified God.</p>	<p>그는 경기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총독은 그에게 “맹세하라, 그러면 너를 놓아주리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카르프는 ‘ 나는 86 년동안 그를 섬겼으며, 그는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며 구원자이신 그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에서, 폴리카르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광되게 했습니다.</p>
<p>Death cannot separate Paul from the love of God or from the Lord Jesus Christ. He’s unafraid of death. Here we have the privilege to see into the mind of the apostle Paul. He’s in two minds.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If he goes on with his life there is much fruitful labour. But his desire is to die, for that means he will be with Christ, which is better by far. There really is no question as to where Paul would rather be. But on the other hand there’s work to be done.</p>	<p>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특권을 가집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일 그가 그의 삶을 계속 이어 간다면, 더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끝나쳐져야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p>
<p><i>Yet what shall I choose? I do not know! I am torn between the two: I desire to depart... but it is more necessary for you (Philippians) that I remain in the body.</i> What a dilemma. He seems to be ‘caught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Hemmed in from both sides he doesn’t appear to know which way to turn, he can’t move. Like a ship at anchor in a storm he</p>	<p>그러나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빌립보인들)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양쪽 모두에 둘러싸여,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듯이 보이며, 그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치 폭풍우에</p>

<p>wants to break away from his moorings and set sail for heaven. Another part of him holds on to life on earth. But Paul knows that to go to be with the Lord is the easy way out. There is yet fruitful labour for him.</p>	<p>땀을 내린 배처럼, 그는 그를 메어두는 밧줄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또 다른 면은 지상에서의 삶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떠나는 것이 쉬운 해결책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더 해야 할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p>
<p>What about us? How does Paul’s honesty affect you and me? If you are young and healthy then the answer is probably, ‘Not much.’ But some of us are older. We’ve lost loved ones. Sometimes, we find little meaning in life. Some may even have lost their way. Why go on? Wouldn’t it be better for the Lord just to take me home to be with Him in Paradise?</p>	<p>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솔직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만일 여러분이 젊고 건강하다면, 그 대답은 아마도 ‘대단치 않아요’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일부는 연로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이 거의 의미 없음을 발견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갈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계속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있도록 천국으로 저를 데려 가시는 것이 주님께 더 낫지 않으신가요?</p>
<p>No! Not if there is work to be done. And there is. The gospel is yet to be spread throughout our land, throughout our world. You may be sick, you may be on your last legs. You may even need reviving on the operating table – but while you have fruitful labour to be done you’re not ready to go to be with the Lord. When you can say, as Paul did (2 Timothy 4:7),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then you’re free to go to and be with the Lord. Even then, it’s in God’s timing, not yours or mine.</p>	<p>아니오! 마쳐야 할 사역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은 우리의 땅과 세상 전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플지도,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살기 위한 수술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 그러나 여러분이 끝마쳐야 할 사역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딤후 4:7), 여러분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아가,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때이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p>
<p>Paul is ready to meet Christ, but not yet. It was different for Jesus. He’d completed His labour through His sacrifice on the cross. His time had come. Polycarp could go no further. His sacrifice greatly encouraged other Christians. Sometimes the sacrifice is to die for your faith. At other times it is to live on knowing that there is fruitful labour ahead.</p>	<p>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희생을 통해 그의 사역을 끝마쳤습니다. 그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폴리카르프는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대단히 용기를 주었습니다. 간혹, 희생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의 열매가 있음을 알고 계속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p>
<p>Now I am not trying to tell you how long you should live, that would be ridiculous. What I am saying is that we should all strive to go on living while we can do fruitful work for the Lord on this earth. Your life is in God’s hands. How you live it and how long your life is, is between you and God. Yet here is the guideline, God requires that your and my life be fruitful.</p>	<p>저는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한 보람있는 사역을 행할 수 있을 동안, 우리 모두는 삶을 지속하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오래일지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보람 있기를 원하십니다.</p>
<p>As I may have probably said to you on previous occasions: ‘You may be a tired Christian, bu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retired Christian.’ Your Christian work and witness is never complete until the day that you see Christ face to face. And that brings me to my third point.</p>	<p>아마도 일전에 제가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권태로운 크리스천일지도 모르지만, 은퇴한 크리스천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크리스천 사역과 증거함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세번째 요점을 불러옵니다.</p>

<p>3. We have confidence in life 1:25, 26, <i>Convinced of this, I know that I will remain, and I will continue with all of you for you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so that through my being with you again your boasting in Christ Jesus will abound on account of me.</i></p>	<p>3. 우리는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1:25,26 절, <i>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i></p>
<p>We Christians are called to stand alongside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One such man was Noble Alexander, a Cuban pastor. He spent over twenty years in a Cuban prison for his faith. While he was in one prison, he led a prayer group. The guards sometimes fired into the middle of the circle to disrupt the service. Most of the men would not move, but continued to sing and pray while the shrapnel tore into their flesh.</p>	<p>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은 쿠바의 목회자였던 노블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 때문에, 20 년을 넘게 쿠바의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한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는 기도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때때로 간수들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모인 이들 한 가운데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그 파편이 그들의 살을 에는 동안 계속해서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p>
<p>Now Paul wasn't being tortured in prison, though suffering for Christ was no stranger to him. But just as Noble Alexander had confidence in life, so too did the apostle Paul. Convinced that his labour had not yet come to an end, he knew that he would be freed to continue in the Lord's work.</p>	<p>바울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은 이상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블 알렉산더가 삶에 있어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가 주님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 자유롭게 될 것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p>
<p>His release would serve three purposes. <u>First</u>, the Philippians would progress in faith. Paul's future ministry among them would confirm that it was necessary for him to be released. <u>Second</u>, was their joy in the Christian faith. Paul longed to share in that Christian joy that they experienced. The Christian life is one of joy. Joy is one of the great themes of Philippians. Their joy will only increase. Or here in 1:26, their joy will overflow.</p>	<p>그의 석방은 세가지 취지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첫째는, 빌립보인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의 바울의 향후 사역은 그가 석방되는 것이 필수적이었음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의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경험한 그리스도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은 빌립보인들의 큰 주제 중 한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오로지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여기 1 장 26 절에서 그들의 기쁨은 흘러 넘칩니다.</p>
<p>Remember that Paul writes this letter from in prison. Yet, as we saw last week, he writes (1:18b,) <i>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 rejoice.</i> Being joyful in the Lord doesn't mean absence of the trials of life. But, it does mean that we have the assurance of Christ that He is with us.</p>	<p>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지난 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1:18b 절에서 <i>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i>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삶에 시험이 없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p>
<p>And so we read in Romans 8:1, <i>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i> And again, in 8:38, 39, <i>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i></p>	<p>로마서 8:1 절은, <i>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i> 그리고 다시 8:38,39 절에 <i>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i></p>
<p><u>Third</u>, the Philippians' joy is in Christ Jesus. As Paul writes in 3:3, Christians <i>glory in Christ Jesus.</i> Christ is our hope, the One in whom we glory. And so we glory in the cross, because it speaks of Christ.</p>	<p>셋째로, 빌립보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3:3 절에서 바울이 적은 바와 같이, 크리스천은 <i>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i>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기뻐할 유일한 분입니다.</p>

	<p>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기뻐합니다.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p>
<p>Have you been able to see what I've been driving at in these two weeks? Perhaps what Paul wrote to the Corinthians might help. 1 Corinthians 10:31, <i>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i> Paul writes in Philippians 1:20 that all of his endeavours are to <i>exalt Christ in my body</i>. Everything that Paul does for God's glory he does in union with Christ. And for us, it must be that way too. It's true that we rebel against God. We fall short of His glory. But in the end God will be glorified on earth as He is glorified in heaven. And God is glorified in His saints, those who are in Christ. Outside of Christ we cannot glorify God. We cannot even begin to please Him.</p>	<p>여러분께서는 제가 두 주 동안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셨나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서신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31 절에서 그는 <i>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i>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2 절에, 그의 모든 노력은 내 몸에서 <i>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함</i>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천국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지상에서도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의 그의 성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를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p>
<p>Union with Christ not only assures of eternal life, but it also gives us confidence in death, and in all of life. That confidence is not in ourselves, but in Christ, who holds us in His hands.</p>	<p>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과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안고 계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p>
<p>The focus of these verses might appear to be upon Paul. But that's not really true. These verses centre on the hope we have in Christ. (In verses 19-26, the name of Christ has occurred five times.)</p>	<p>이러한 구절들의 초점이 곧 바울에게 다다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갖고 있는 소망에 중점을 둡니다. (19-26 절, 그리스도의 이름이 5 번 언급되었습니다.)</p>
<p>Christian friends, Christ is your only comfort in life and in death. Because of Christ we face life and death with confidence. Yes we thank God for modern technology and for the increased quality of life that we can now enjoy. But Christian hope, your confidence and mine, is firmly founded on God in Christ for our salvation, now and in the future.</p>	<p>크리스천 동료 여러분, 삶과 죽음에 있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직면합니다. 네, 우리는 현대 기술과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과 저의 확신인 크리스천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안의 하나님께 공고히 그 토대를 둡니다.</p>
<p>May the name of the Lord Jesus be exalted among us today and for ever more. Amen.</p>	<p>오늘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이 칭송되어 질 지어다! 아멘.</p>